



###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이 만방에 떨치고 온 겨레가 신심드높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8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반제민주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함께 애국민중의 결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민족의 아버지이신 김일성주석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주석님의 필생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업무를 끝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대행운의 날이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이 있어 수만났던 우리 민족은 예속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민족적존엄과 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자주시대를 개척하고 승리만을 떨치는 위대한 민족으로 위용떨칠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닐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장장 70성상 근로민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역사의 최고성과를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민족을 나아가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으며 선군의 기치 밑에 미, 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셨습니다.

주석님께서서는 경천의 의지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이끄시어 이북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셨으며 사평과 믿음으로 충만된 인력적지의 화원을 펼쳐지셨습니다.

더욱이 주석님께서 친리해인의 예지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앞길을 내다보시고 경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우리 민족의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게 하여주신것은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과 강성대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준 특기할 공적으로 빛나고있습니다.

가장 숭고하고 뜨거운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신 주석님께서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 3대헌장을 천명하시었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치시어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셨습니다.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주석님께서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반제민주투쟁의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으며 진보적인류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는 격조고무투쟁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주석님이시야말로 위인으로서의 자질과 품모를 완벽히 체현하시고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천하제일의 위인이심을 더욱더 꿰루어 절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은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구가하고있습니다.

일찌기 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인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어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나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의 변천과 변혁실천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사상리론적개발들로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하시어 주체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의 확고한 사상적근토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숭고한 도덕리념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처음보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주석님의

사상과 업적이 주체조선의 력사와 자주시대 혁명운동사와 더불어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석님의 독창적인 선군사상과 로선을 구현한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십니다.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이북은 최선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과 민중생활향상의 결정적돌고래를 열어제끼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습니다.

지금 남녘민중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위원회 공동주요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날날마다 대박약, 대혁신을 일으키나가는 이북공민들의 영웅적기상에서 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릴 그날을 확신하고있습니다.

아버이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할 일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내의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온 겨레의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고계십니다.

특히 장군님께서서는 친미보수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약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주동적이며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어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오늘 주체조선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있는것은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시대를 힘있게 선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현명한 령도가 안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참으로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아버지주석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주석님의 념원을 밝아오시는 강성대국의 아침과 더불어 찬란히 꽃피어나고있습니다.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함께 애국민중은 아버지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철석같은 의지를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바라 자주통일의 한길로 여세를 걸어가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주석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찬세만세 높이 모시고 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결사관철해나갑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반제민주투쟁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정신무장된 사상과 신념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갑니다.

우리들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대결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을 뒷받침하며 보수세력의 지배권력독점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내려겠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반드시 열어 놓고야말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통일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근토이며 우리 남녘민중의 절절한 소망입니다.

반제민주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함께 민족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주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99 (2010)년 4월 15일 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들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불타올리신 인민생활향상 대고조의 열풍속에서 아버지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평생의 뜻인 사회주의리상이 조국땅도처에 꽃피고나고 일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4월의 불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류달리 뜻깊은 력사의 해에 맞이한 태양절에 즈음하여 경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이인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시러 애국의 공민들의 영애와 존엄, 참된 애국의 삶을 안겨주시며 해빛보다 따사로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생명의 은인이시고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버이주석님의 한결같은 은덕에 대한 고마움에 사무칠수록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가는것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후손만대 빛내여가시는 경제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모시고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기에 우리 조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고립압살책동을 쳐닫고 불패로 다져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기술강국으로 추켜올라 세계를 굽어보고있으니 우리들의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은 하늘가에 닿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을 용대한 이상을 펼치시고 천만공민의 무한한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 이룩해나가는 대박약과 대혁신은 선군시대의 기적으로 온 세상을 경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민생활향상에서의 결정적전환을 위하여 이어가시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초강도혁신기도의 자애마다 선정기로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 바라고보며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의 념원인 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라는 흥분과 신심으로 끓어넘치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문불휴의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새세기 총련이 틀어쥐고나가는 할 강령적지침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전환과 승리적전진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와 사랑의 나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대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내이려는 조국인민들의 총공세에 보조를 맞추어 총련도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개척의 성스러운 위업에 걸터세워주시고 언제나 제일동포들을 한심축로 안아주시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령도와 사랑의 위대함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습니다.

진정 경제하는 장군님은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제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제일조선인운동역사에 아로새겨진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제일동포들의 찬찬한 미소가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안고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며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을 끝까지 고수하고 주체의 사상체계,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일심단결된 애국적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총련을 제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참담하게 헌신분부하여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참된 민족단체로,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군중속에 뿌리박은 위대한 동포대중단체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올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정하여주신 경제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제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서 돌파구를 열어 새 전성기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대증적양상을 일으키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국과 민족애에 지닌 숭고한 애국적분분을 깊이 간직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애국지성을 바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며 주동적인 대외활동으로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을 철저히 배분쇄하고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우호친선과 조일평양선언 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결성 55돐을 기념하는 뜻깊은 5월에 가지는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2012년을 향한 도약의 대회로, 조국인민들과 한마음한뜻으로 김일성민족의 100년대를 커다란 성파로 증지높이 빛내이며 제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분수령에 세우는 리정표로 장식하겠습니다.

이국땅에서 시련의 고비고비를 승리로 넘어온 로정을 돌이켜보고 나아가갈 앞길을 내다보는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된 간절한 소원은 조국과 민족,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운명이며 필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경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한결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불세출의 애국자이시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제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제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99 (2010)년 4월 15일 일본 도쿄

### 당과 국가 간부들 혁명의 성지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역, 정권기관, 근로단체,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15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뒹글어 있었다. 그들은 만경대혁명사적관에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모든것을 바치신 경제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풍을 뜻깊게 이어

오신 만경대일군분들의 고귀한 생애를 다시금 되새기었다. 경건한 마음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끈뚱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경제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가 추녀났을은 수수한 이 초기집에 뿌리를 두고있음을 절감하면서 소중한 보물고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당과 국가간부들은 만경대방문을 기념하여 고향집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뜻깊은 4월의 불명절에 혁명의 요람만경대를 방문한 경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김일성동지의 선군 령도마라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인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이 땅에 우에 기어 일떠세울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었다.

은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열렬한 창조자의 긍지를 안고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이한 각계 근로자들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경모의 정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각계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인류의 끝없는 흠모의 정에 떠날줄도 모름답게 뛰어난 김일성화들을 보면서 조국과

소년학생들이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는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해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경모심은 제12차 김일성화추진선전과 각도의 김일성화추진회에서도 뜨겁게 끓어올랐다.

각계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인류의 끝없는 흠모의 정에 떠날줄도 모름답게 뛰어난 김일성화들을 보면서 조국과

학생들은 대학창공연무대를 펼치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애국헌신으로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제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개성시와 풍서군, 배천군 등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의 집단제조가 진행되었다.

배우, 장기, 율놀이 등 체육회오락경기가 무산판산연합기업소, 2.8비날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연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벌어졌다.

뜻깊은 태양절을 끝없는 환희속에 기념하는 각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제하는 장군님의 령도마라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 건설하고자 말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일조우호친선대표단을 만났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내각총리 김영일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 총리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베 이 정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주 석  
호 금 도 동 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온 가 보 통 지

우리들은 귀국의 청해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손실이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피해지역 인민들이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명도밑에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김 영 일

주제99 (2010)년 4월 15일 평 양



# 비 날 론 삼 천 리

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

절절하게 (♩ = 80)

1. 만경봉 의 - 무지개 - 를 비 단 필 로 늘었 - 나 정 일 봉 의 - 진 달 래 - 를  
 꽃 무 니 로 새 게 - 나 들 에 서 수 령 님 꽃 피 운 사 랑  
 이 강 산 에 넘 쳐 흐 르 네 비 - 날 론 삼 천 - 리  
 비 - 날 론 삼 천 - 리 장 - 군 님 - 께 쳐 주 셧 - 네

2. 전 선 길 에 맞 으 신 눈 솨 에 스며 포 근 해 공 장 길 에 남 기 신 정 실 에 어 려 따 스 해  
 고 난 의 그 날 에 지 켜 준 행 복 선 군 으 로 빛 내 주 었 네  
 비 날 론 삼 천 리 비 날 론 삼 천 리 장 군 님 께 쳐 주 셧 네

3. 세 상 끝 에 늘 이 머 는 이 행 복 을 다 불 가 세 월 끝 에 당 으 머 는 그 사 랑 을 다 알 가  
 민 족 이 누 려 갈 만 복 의 재 부 후 손 만 대 이 어 주 었 네  
 비 날 론 삼 천 리 비 날 론 삼 천 리 장 군 님 께 쳐 주 셧 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주조 무관단과 중국 동북지방의 대표단들 꽃바구니 진정

태양절에 즈음하여 민수대인더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주조 무관단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보현보원투송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중국 동북지방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종천선의 강화발전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보현보원투송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15일 중국 동북지방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종천선의 강화발전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그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제일본조 주체사상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박관조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

##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만 경 대 방 문



제 2 차 4 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5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국가관광총국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 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방문단을 위하여 15일 양강도국제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축선총 국가려유 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방문단 성원들과 류홍제 주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도준 국가관광총국 총국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니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 중국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방문단을 위한 연 회 진 행

방문단 성원들과 류홍제 주 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도준 국가관광총국 총국 장, 판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 회 참 가 자 들 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조종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 각지 소년 단야영소들에서 올 해 첫 기 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서 올 해 첫 기 야영이 시작되었다.

이번 야영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 일하기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만경대소년단야영소 입소식이 15일에 진행되었다.

판계부문 일꾼들, 야영소 교직원들과 야영생들이 참가하였다.

야영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야영기 열기를 바라보는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학생들이 민족의 앞날을 떠매고나갈 혁명의 계승자,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며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8돐기념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무도회장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수령님의 평생원인이 현실로 꽃피고나고 강성대국선조의 력사적승리를 앞당기는 벅찬 시기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 개신문광장 등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태양절을 노래하세》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져서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안고 춤바다를 열었다.

《만경대의 노래》,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세》,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

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겼었다.

최세의 선군령장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천만 군민의 끝없는 영광의 분출인듯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그이의 리상》을 비롯한 노래들이 울려 퍼

의 얼굴마다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현지도강행군길을 이어 가시며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가 어려웠었다.

무도회참가자들은 피뎠는 심장을 어머니당에 바쳐 선군시대의



- 당 창건 기념 탑 광장에서 -

##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8돐기념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림동지와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기악과 노래 《태양절 불멸절 노래해요》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무용 《꽃피는 4월》, 《장군님 품을 찾아서》, 2중창 《사진》, 너중창 《내 나라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이요》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출연자들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며 귀중한 모든 것을 안겨주시고 오늘날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으로 창조한 미래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애국의 정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선군장정의 길에서 찬바람, 눈비를 타 맞으며 새 세대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는 무용 《장군님과 아이들》, 첼로중주 《장군님 발자국소리》, 남독창 《빛나라 우리 원수님》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독창 《노래해요 선군 새 품경》, 《내 나라 비날론춤 제일 좋아요》, 독무 《물동이춤》, 남중창 《우리도 최첨단고기 향애가자》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리

상이 실현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지극체의 노래를 활짝 피고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선군동지들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노래와 춤 《선군혁명후비대 앞으로》로 끝난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시작한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걸어갈 새 세대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

## 공화국정부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연회 마련

태양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1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비슈와나스 주체사상연구조직소리사장, 오가미 경이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박관조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판계부문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양형섭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

를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는 지지와 편대성을 보내주었고는 주체사상연구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비슈와나스리사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히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주석께서 세워 주신 사회주의제도에서 조선인민은 무상

치료를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만민의 심정속에 영생불멸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주석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 나가는 김정일각각께서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신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대원수님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제일본조 주체사상연구소 단장인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민족최대의 명절에 즈음하여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월 15일은 민족의 태양을 맞이한 대운동의 날이며 7천만겨레의 앞길에 밝은 전도가 열릴진 뜻깊은 날이다. 우리 민족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민족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자주 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셨다. 그이께서는 배양되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 계시여 제일등도들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들 수 있었다.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통일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모두들의 마음속에 영생시킬것이다. 사상과 령도력, 품모에 있어서 아버지수령님 그대 로 이신 경 애 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태양의 력사는 증거가 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군주의 유산으로 물려 주신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이시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게신다.

천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불러일으킨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는 이 땅우에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하였다.

인공지위성 《광명성 2호》가 성파적으로 발사되고 우리의 CNC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등 사변들을 통하여 선군

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불멸의 기상이 만방에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숭고한 념원이 현실로 꽃피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은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오늘 조국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웠는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동세가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맞추어 총련의 애국위업실현과 강성대국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하겠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 만 경 대 방문, 여러 곳 참 관

평양에서 경모하고있다.

안파 씨가 야오 주체사상 연구원장경쟁연구회대표단 단장은 축전장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단체들과 인사들이 아름답게 피운 김정일화도들 전시되어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인류의 다함없는 정성을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표단, 대표들은 조선 혁명박물관, 당창건기념탑, 사리원시 미곡혁명농장들을 비롯한 평양과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이들이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여 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마레오 카르보넬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은 다음



파 같이 말하였다.

조선혁명의 력사가 여기 만경대에서 시작되였다.

위대한 김정일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주석을



# 위인칭송의 한마음 뜨겁게 굶이치는 불멸의 꽃축전

## 제 1 2 차 김일성 화축전장에서

### 래양의 위업 길이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맹세

### 꽃송이마다 어린 지성

지난 12일 제 12차 김일성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이번 축전은 김일성화명명 45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로작 《김일성화는 자수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 발표 5년이 되는 해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더 의미깊은 축전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해마다 래양혈을 맞으며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은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정치축전입니다.》  
축전장에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승연한 격정을 휩싸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을 추복해주시는듯 해빛처럼 밝은 미소를 지니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이곳에서 우리는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와 한 일군을 만나게 되었다.  
《이 축전장에만 와보아도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고 수령님을 그리며 따르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짐작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축전장에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다함없는 품도의 마음이 담긴 수만상의 김일성화 전시되었다고 말하였다.  
축전장의 2층에는 많은 단위의 전시대와 함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우리 나라 주제 인

도시아공화국대사관, 기네 《김일성화은실》의 명의로 된 전시대들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전시대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김정덕소속부대 전시대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을 때지 못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중심에 모시고 태양의 꽃바다를 장엄하게 펼친 전시대앞에서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어 나갈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가슴 뜨겁게 새겨 넣고있었다.  
이번 축전에서 지난 시기와 다른 특색있는 전시대형상은 《김일성화와 더불어 영광하는 인류의 태양 우리 수령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축전의 성격에 맞게 태양의 꽃들을 만경대의 불공경과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형상한 대형전광판을 배경으로 활황하게 펼쳐졌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의 불공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은 참관자들을 하여금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며 모실 불타는 열정에 넘쳐있다.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 전시대에서 - 본사기자 김 광혁 찍음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배경으로 펼쳐진 태양의 꽃전시대들도 참관자들의 환희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계단을 따라 3층에 오른 우리는 농업성전시대앞에서 경을 멈추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리라는 마지막시기까지 포전길에 걸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안고 농업성의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정성대단히 애써서 마련한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주고있다.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모습을 떠받치고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성 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농업성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를 꽃송이마다에 그대로 담기 위하여 우리는 지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축전장에 차린채는 한없는 그리움의 정을 짐작도 안아보며 우리는 더욱 절감하였다. 천만년 세월이 흐르다 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짙아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뜨거운 승격을 후대에게 안아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불멸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불멸한 것이라는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을 담아 백두산전지의 장엄한

### 만경대교향집형상에 깃든 순결한 마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품을 떠나는 한 순간도 실수 없는 수령님의 영원한 한식속입니다.》  
이번 축전에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전시대들 가운데는 철도성전시대도 있다.  
철도성 일군들과 농업인들이 아름답게 피운 김일성화들도 매우 화려하지만 전시대의 중심에 형성되어있는 만경대교향집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도록 혁명의 요람 만경대의 우수같은 교향집을 세웠다는 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축전장에 많은 단위에서 전시대에 만경대교향집을 형성하였지만 철도성에서 형성한 만경대교향집은 참으로 생동하고 정성이 깃들여있어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있다. 전시

### 수도건설부 전시대에서

우리가 수도건설부 전시대를 찾았을 때였다. 전시대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약속대로 이렇게 축전에서 만나지만,》 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수도건설부 전시대입니다. 수도건설부 국장 리승철동무는 우리에게 그 사연을 말하였다.  
지난 3월 어느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전에 참가한 건설자들이 수도건설부 전시대를 찾았다. 그들은 우리 수도건설부들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화를 더 아름답게 꾸미달라고 절절히 부탁하면서 태양의 꽃을 피우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가져주었다. 김일성화축전에 내놓을 태양의 꽃을 지성을 쏟아붓는 건설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김일성화를 훌륭히 피운 자랑을 안고,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한 긍지를 안고 축전에서 다시 만나자고. 온실에서는 축전의 날을 기다리며 태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건설장에서는 축전의 날을 맞으며 새로운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드디어 축전이 개막된 날 수도건설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저저마다 축전장에서 절음을 단그쳤다. 김일성화를 훌륭히 피운 자랑을 안고,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한 긍지를 안고, 우리는 수도건설부전시대에 피어난 태양의 꽃들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이, 얼마나 고결한 지향들이 그 한송이 한송이 꽃들에 비쳐있는지인가. 김일성화축전, 정령 그 것은 단순한 꽃전시대가 아니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의 아름다운 화폭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 국가과학원 전시대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끝없는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열정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의 위인홍도의 정이 뜨겁게 느껴지는 국가과학원 전시대에는 격동속에 안아보게 되는 이런 글밭도 있다. 《최첨단들과》  
국가과학원 전시대에 이런 글밭이 두드러지게 형성된다는 사실이 있다. 김일성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는 눈부신 성과들은 국가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과학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사랑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첨단들과의 진초병, 과학기술강국건설의 기수로 내세워주시고

## 아닌 이리미의 한겨레춤이 마음에 담아

### 행복의 꽃바다

제 2 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보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수컷터럭사서머 오린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머니이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인하는 인류의 래양입니다.》  
이번 축전무대에는 산소분리기생산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경사송이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분배를 보여준 락원의 8명 단원들과 로동계급의 진정한 당부라는 안고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바로 평안북도에 예술전대 예술인이다. 그러면 축전의 길로 떠나

평안북도 예술전대에서  
평안북도 예술전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락원 로동계급의 수명결사용위의 모습을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이 절절한 당부를 안고  
평안북도 예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은 의하여 창작원생된 선동곡이 기업소무대에 펼쳐지던 날 락원의 8명 단원들과 로동계급은 산소분리기생산과정을 통하여 락원에서 혁명의 대, 수명결사용위의 대가 자신들의 가정들에서도 이어

평안북도 예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 축전무대에 선동곡 《무리》를 펼쳐놓아 관중들을 크게 감동시키겠다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현  
평안북도 예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 축전무대에 선동곡 《무리》를 펼쳐놓아 관중들을 크게 감동시키겠다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현  
평안북도 예술전대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 축전무대에 선동곡 《무리》를 펼쳐놓아 관중들을 크게 감동시키겠다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현

축전무대에서 청년중앙 예술전대 예술인들이 펼친 모든 예술종목들이 다 그렇지만 공연의 첫 순서로 무대에 펼친 소합창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가 관중들에게 주는 감동은 참으로 크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혹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과 언제나 함께 있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찬란

첫 종목선택에 깃든 사연  
청년중앙 예술전대에서  
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는 이 노래에 어떻게 하여 이 노래를 처음으로 접하던 그날의 세계에 이 끌어안았다.  
노래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가 나왔을 때 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기쁨의 환성을 터치며 합창하던 일이며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와 함께 모두의 신념을 굳게 해주는 수령님도, 수령영생송이를 가지고 사회주의대전장에서 나가

행복의 꽃바다  
강원도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제창이 《행복의 나들이》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펼쳐보임으로써 관중들에게 강성대국의 찬란한 해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회양군 포천협동농장을 찾으며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분조관리제의 세 력사를 펼쳐주시고 포전길을 위임없이 걸으면서 어느 한 단위에 가시어서는 손수 감나무에 달린 감알의 수도 헤아리시며 농민들의 생활을 그토록 널리 배려하신 영원한 태양의 모습...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령도아래 오늘날은 불강건도로, 소금꽃바다로 전진되고 청춘과외로 번모되어가는 행복의 꽃바다를 예술인들은 소리높이 구가하고있다.  
유기농법 좋다  
황해남도예술선전대에서 무대에 올린 《유기농법 좋다》의 제답이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출연자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농사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혹을 심장같이 새기고 우렁이에 의한 논벼배판과 많은 논벼와 논밭을 절약하며 논벼소출을 높일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동한 자료로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는 오늘의 농업발전